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9월 8일 금요일 (음 7월 18일)

제188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도 차 부품 기술 개발 '탄력'

도 자동차융합기술원-자동차부품연구원 협업 약속
연구개발과제 발굴·공동 추진 등 사업 추진키로

자동차융합기술원과 자동차부품연구원 연구원은 지난 6일 프리미엄자동차연구센터(전남 영암)에서 상호협력협약을 체결하고 고성능 자동차부품의 기술 개발을 위하여 상호 긴밀한 협업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고성능, 고가능으로 변화하는 자동차부품의 기술고도화에 기여하기 위해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최근 프리미엄 자동차 업체뿐만 아니라 양산차 업체도 수익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앞 다투어 고성능 자동차 브랜드를 출시하고 있다.

이러한 고성능 자동차는 대배기량

의 엔진, 대용량 브레이크 등의 고성능 부품과 고강도 경량차체를 필요로 한다. 특히 주행거리 제약이 받고 있는 전기자동차는 고성능, 고기능 동력부품과 함께 초경량 차체를 요구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시험평가장비의 공동 활용, 연구개발과제 발굴 및 공동 추진, 관련 산업의 정보 공유, 전문인력 양성의 공동 추진, 그리고 상호교류 협력 등에 관한 공동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대형상용차와 뿌리, 특장차에 관한 인프라와 기술개발협력을 보유한 자동차융합기술원과 프리미엄 자동차

연구개발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부품연구원이 협력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프리미엄 전기차를 위해 개발한 모터와 인버터 기술 등을 공유하고 이를 지역의 친환경 전기상용차에 적용할 경우 고급 브랜드화가 가능하다.

또 도내에서 생산되는 탄소소재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적용한 탄소 브레이크 디스크, 하이브리드 플라스틱 로워암 등 고성능성 자동차부품의 기술개발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자동차융합기술원과 자동차부품연구원과의 협약을 통해 도내 자동차 부품의 고급 브랜드화로 글로벌 자동차부품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청와대 하승창 사회혁신수석(왼쪽)을 비롯해 김성환, 이원강 청와대 행정관, 하병필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관이 7일 전북도청을 방문하여 송하진 도지사와 전북지역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은 송하진 도지사와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일행이 명함을 주고 받는 모습.

'잃어버린 제 몫 찾기, 전북의 중요 혁신과제'

송하진 지사,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 등과 현안 논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새만금 잼버리 등 지원 요청

하 수석 "삼락마켓 운영 사례 등 새정부 정책 반영 검토할 것"

전북도는 7일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과 김금옥 시민사회비서관이 전북도청을 찾아 송하진 도지사와 전북지역 현안에 대한 깊은 교감을 나눴다고 밝혔다.

송하진 도지사는 "회색의 토포를 나누면서 전북도의 가장 중요한 혁신과제는 '전북의 잃어버린 제 몫 찾기'임을 강조하고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 관련 사업, 국립 지역권 산림치유원 조성,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에 정부의 전문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하승창 수석은 "송하진 지사님을 비롯한 전북도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생각들이 새 정부 정책에 반영되어 잃어버린 전북의 몫을 되찾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김금옥 시민사회비서관이 전북 농촌혁신 현장 방문, 전북의 삼락농정, 농어촌종합지원센터는 전국 혁신사례로 평가 했다. 하승창 수석과 김금옥 비서관은 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와 전북 삼락로컬마켓을 방문하여 전북도의 삼락농정과 생생마을만들기에 대해 청취하고, 전북 농촌지역 사회혁신가들과 새정부 농촌 혁신과제에 대한 현장 토론회도 가졌다.

하 수석은 "삼락농정 분과위원회의 주민참여형 상생식 운영과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효율적 통합을 이룬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안전한 먹거리와 직거래를 실현하는 삼락로컬마켓을 운영하는 사례는 전국적인 혁신사례로 새정부 정책에도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혁신은 이론에 있지않고 국민들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찾아내고 공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됨을 강조, 송하진 지사의 '절문근사(切問近思)' 배울점 많아 전북도청 방문을 시작으로 시민단체 원로간담회, 제10회 마을만들기전국대회 개막식 참석 등 전북 곳곳을 둘러보고 청와대로 복귀하는 자리에서 "전북도민들의 어려움을 발로 뛰며 찾아내고, 현장에서 고민하는 전북지역 사회혁신가들과 일선 공무원들, 마을공동체 리더들에게 큰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매일 INDEX

3면 - '극동개발, 북핵해결 근원 해법'

신산업 분야 규제개혁 사후규제 방식으로

정부, 사전 허용서 전환키로

정부가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대한 규제 방식을 '사전허용'에서 '사후규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 방향'을 심의·확정했다.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대한 규제에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개념을 도입해 '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기존의 규제 속에서도 신산업을 시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제도로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정부는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에 시범사업·임시허가 제도를 적용해 규제 면제·유예·완화 등의 조치를 하되, 문제점이 인지될 경우 철회 또는 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사후규제를 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뉴시스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토론하기 전 싸움부터..."

전주 헌법개정 토론회장서 실랑이

헌법 개정 토론회장이 일부 물지각한 시민들로 인해 무질서한 모습을 보였다.

7일 오후 2시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는 헌법 개정 국민대토론회가 열렸다.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전국을 돌며 개헌에 관한 국민 의견을 듣는 자리다.

전북에서는 부안과 광주 등에 이어 4번째로 열렸다.

문제는 개헌 논의 과정에서 성명 등이 강조되며 동성혼 합법화 가능성이 제기되자 일부 동성애 반대론자들이 항의하고 나선 것이다.

선착순으로 입장이 가능한 토론장에 만석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막무가내로 입장을 요구하는 파

장에서 질서유지를 위해 배치된 청원경찰과 부딪혔다.

이들은 "일부러 동성혼에 찬성하는 진보토론자들만 입장을 시키는 것이 아니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또 일부 기독교단체는 하늘의 섭리를 무시하려는 시도로 규정하고 전북도청 앞에서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토론회 입장을 기다린 시민들이 먼저 입장해 이미 자리가 다 찼다. 무작정 입장을 시켜달라는 것은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팔복동 철길 옆 금학천, 시민 휴식공간으로 정비

전주시, 2019년 말까지 160억원 투자 생태하천 조성 연차 시행

노후 공단지역으로 폭우 시 침수피해가 잦았던 전주시 팔복동 철길 옆 금학천을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정비하는 사업이 본격화된다.

전주시는 익산국토관리청과의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 오는 2019년 말까지 총 160억원을 들여 금학천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주페이퍼에서 전주천 국가하천 합류점까지 금학천 2.2km구

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호안도 정비한다.

아울러 교량을 재가설하고, 유지용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금학천은 노후 공단인 전주산단 등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로 오래전부터 정비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이 일대의 지대가 낮아 집중호우시에는 주변 주택과 공장건물 등이 잦은 침수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시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치수안정성이 확보되고 유지용수 공급에 따

른 수질개선으로 생태환경 복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전주 북부권의 노후 산단을 재생시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금학천 정비 사업과 팔복동 산단 재생사업과 철길명소화 사업, 팔복문화예술공장 등과 연계해 추진해오고 있다.

양연수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재해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수생태계가 살아 숨 쉬는 하천과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군장대학교
평생직업교육대학

좋은일이생기는대학

굿잡!

군장대학교

평생직업교육대학 | 고등직업교육품질인증대학 | 교육부 선정 유니테크사업대학 | 산업부 선정 뿌리산업 외국인양성대학

▶ NCS기반 학위·비학위 통합과정 학생 모집 : 교육프로그램별 상시모집

▶ 문의전화 : 063-450-8071-5